

노인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시부 및 시모에 대한 공변량구조모형 분석*

김 상 욱** · 양 철 호***

본 연구는 사회화 및 사회통제의 제도적 기제로서의 가족제도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노부모부양에 대한 의식 및 행태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노부모부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이를 위하여 가정 내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를 설명하는 시안적 형태의 이론적 선형경로모형을 구성·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모형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시부 및 시모에 대한 모형을 공변량구조모형(LISREL)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각기 추정한 결과, 시부부양과 관련하여서는 자부의 교육수준 및 시부의 연령, 시부의 건강상태, 그리고 가구원수가 부양행위에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시모부양과 관련하여선 자부의 교육수준 및 시모의 연령, 가구원수, 그리고 부양태도가 부양행위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부 및 시모 모형에 대한 상호비교 결과, 부양자의 교육수준 및 부양대상자의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는 두 모형 모두에 공통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세 가지 변인을 제외하고는 두 모형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발견되었다. 모형추정의 결과 제시된 경험적 발견에 근거하여 몇몇 주요 이론적·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I. 연구의 목적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는 사회구조의 모든 측면에서 거의 예외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 및 인구구성의 변화에 수반된 가족구조의 변화는 여타의 사회구조적 변화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가 지니는 여러 측면들 가운데서도 가장 주시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아마도 전체 인구의 고령화(population aging) 및 그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의 출현일 것이다.

* 본 연구는 동신대학교 96학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통계청(1997)이 최근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¹⁾가 차지하는 비율은 6.3%인데, 이는 1990년의 5.1%이던 것이 불과 7년 사이에 1.2%가 증가한 것으로써 우리사회의 인구고령화가 얼마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인구구성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고령화지수(Index of Aging)²⁾에 있어서도 1990년 20.0%이던 것이 1997년 28.3%로 급격히 상승하였다(통계청, 1997). 이제까지의 고령화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12년후인 2010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은 10%선에 육박하고 고령화지수는 40%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윤종주, 1988; 통계청, 1991; 보건복지부, 1997), 한국사회는 머지않아 본격적인 선진국형 고령화사회(aging society)³⁾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인구고령화추세의 주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의료기술의 발달 및 그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을 지적할 수 있다. 70년대 이후의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 및 그로 인한 연소인구(0~14세)의 급감 역시 평균연령의 증가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나,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은 고령인구의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인구고령화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구고령화현상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 현상임에 틀림이 없으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가족적 차원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을 지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고령인구의 증가현상은 복지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이들에 대한 전체 사회의 복지공급 확대를 유발할 뿐 만 아니라, 개개 가족의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의 소지를 내포한다.⁴⁾ 역할갈등 및 재정적 부담,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악화 등이 가족내 노인부양전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이라는 사실은 기존의 여러 연구들(Archard, 1983; Cantor, 1983; Deimling and Bass, 1986; Pearson et al., 1988)을 통하여 누차 강조된 바 있다. 고령자에 대한 권위주의적 가족부양체계가 확대가족제도내에서 당연하게 이루어

-
- 1) 한 개인에 있어서 노인이 되는 시기는 개인의 신체적 노화정도 및 사회활동 혹은 가정내 역할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범주를 일컫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장인협과 최성재, 1994).
 - 2) 15세 미만의 연소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
 - 3) U.N.(1990)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7%를 상회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규정한다.
 - 4) 노인부양의 기제는 기본적으로 공적부양체계 및 사적부양체계로 구분되는데(Cantor and Little, 1985), 공적부양체계란 지역사회 혹은 국가에 의한 공식적·제도적 부양체계를 의미함에 비하여, 사적부양체계는 노인 주변의 사회적 연결망에 의한 부양체계로써 가족에 의한 부양-혹은 가족부양체계-이 근간을 형성한다(박재간, 1985; 성규탁, 1990(a); 김태현, 1998). 공적부양체계는 주로 사회보장제도 혹은 공적부조에 의존한 부양체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미흡하여 사적부양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실정이다(장인협과 최성재, 1994). 사적부양체계에는 가족부양 이외에도 노인 자신이 자조적으로 노후에 스스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자기부양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들 가운데 자기부양을 행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결과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6;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2)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가족부양이 한국 사적부양체계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주장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는 뚜렷한 현실로써 논란의 여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 도시화, 여성취업의 확대 등 일련의 상호 연관된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고령자에 대한 가족내 부양은 점차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임종권 외, 1985; 성규탁, 1990(b); 박재홍, 1993; 장경섭, 1993). 또한, 그간의 출산을 저하할 고려할 때, 현재 40-50대의 중·장년층이 고령인구에 편입되는 2010년대 이후에는 노인부양인력의 절대적 감소로 말미암아 노인부양은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전체 노인가구 가운데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10년전인 1988년에 이미 22.6%에 달하였으며(이가옥 외, 1989), 1994년에는 38.5%에 이르렀다는 보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는 가족내 노인부양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⁵⁾ 더구나, 최근에는 이혼 혹은 실업 등으로 인하여 가족해체가 가속화하는 양상마저 보이는데, 이는 전통적 노인부양체계를 약화시키고 가족내 노인부양문제를 가중시키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고령화 및 그에 따른 사회적·가족적 책임의 증가가 야기하는 제반 문제는 사회화 및 사회통제의 주요 기제로서의 가족제도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노인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혹은 부양윤리가 퇴색하는 현상⁶⁾과 맞물려서 더더욱 그 심각성을 더해갈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 노인들의 대부분은 자녀들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준비를 결여한다(김성순, 1990)는 사실을 상기할 때, 노인부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할 것이라는 예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처럼 심각성을 더해 가는 노부모부양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사회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되어 지는 것은 가정내의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노부모부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일 것이다. 노인부양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김태현, 1981; 임종권 외, 1985; 조유향과 윤현숙, 1988; 이인정, 1989; 서병숙과 이신숙, 1990; 이가옥 외, 1990)을 통하여 노부모부양과 관련된 여러 선행변인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같은 일련의 연구결과는 노인부양과 관련을 지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이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노인부양과 특정 변인간의 상관관계 위주의 분석에 치우침으로써 인과관계를 적절히 확립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변인통제를 가능케 하는 추리통계기법을 사용한 인과관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특정 변인과 노인부양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파악하였다하더라도

5) 박재간(1990)에 의하면,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앞으로 더욱 급속히 팽창하여 2010년에는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6) 노부모부양에 관한 노인과 자녀세대간의 가치관 차이에 관해선 이상규(1983), 최성재(1984), 임종권 외(1985), 박인덕(1989), 이가옥 외(1990) 등을 참조할 것.

그같은 관계가 어떠한 이유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다. 과학적 연구의 주요 목표가 유관 변인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설명이라는 원론적 사실을 상기할 때, 변인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필수적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⁷⁾ 셋째,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노인부양과 관련한 심리적 차원의 태도(attitude)와 행태적 차원의 행위(behavior)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부양태도와 부양행위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하였다.⁸⁾ 일반적으로 태도와 행위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Andrews and Kandel, 1979; Kim et al., 1993; Kim et al., 1996)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부양태도와 부양행위를 개념적으로 구분한 상태에서 양자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또한 각 현상과 연관된 인과적 요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부모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요인들을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부양행위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인과모형의 구성인데, 이론적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서 본 연구가 지니는 어려움은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이론적 모형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하여 적용할 이론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시안적 형태의 모형이 제시될 것이다. 제시된 모형의 시안적 성격으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의 모형개발 및 수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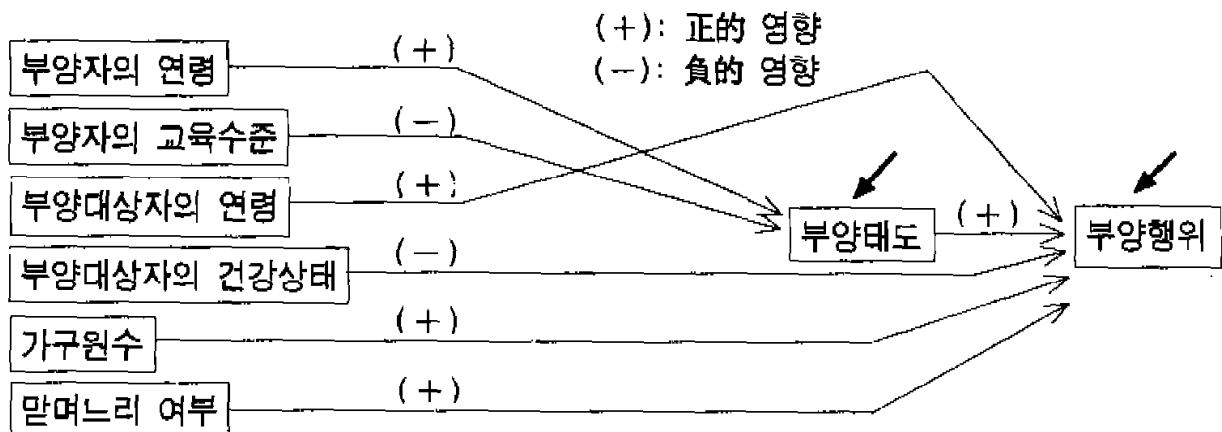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제시된 모형은 공변량구조동식모형(co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써, 각각의 외생변인들이 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이론적 인과관계를 가설적 주장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모형은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를 내생변인(endogenous variables)으로 설정하였으며, 외생변인(exogenous variables)으로는 부양자⁹⁾의 연령, 부양자의 교육수준, 부양대상자의 연령, 부양대상자의 건강상

7) 노인부양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의 '이론의 부재' 문제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문제의 해결 및 이를 위한 사후적 프로그램개발이라는 실천적 지향을 강조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8) 노인부양에 관한 기존의 수많은 연구결과의 집적에도 불구하고 부양태도와 부양행위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서병숙과 이신숙(1990)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태, 가구원수, 그리고 부양자가 맡여느리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인(dummy variable)을 포함한 총 6가지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이 설정되었다.



<그림 1> 노인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본모형

제시된 모형의 기본특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시된 바의 모형은 비교적 간결한 모형으로써 모형의 복합적 설명력(explanatory power)보다는 간결성(parsimoniousness)에 비중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보다 폭넓은 외생변인을 도입함으로써 모형의 설명력 증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나, 간결성 역시 모형구성의 주요 기준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결한 모형이 제시되었다. 물론 이처럼 간결한 모형은 미설정오류(misspecification error)를 범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제시된 소수의 외생변인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다면 타당한 모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형에 포함된 외생변인들 가운데 일부(부양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는 부양태도라는 매개적 내생변인을 경유하여 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일부의 변인들(부양대상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가구원수, 맡여느리 여부)은 부양태도에 매개됨이 없이 부양행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인과경로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로가 설정된 이유는 태도와 행위간의 기본적인 속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즉, 지속성 및 표출성의 측면에서 태도와 행위를 비교할 때, 태도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이며 내재적인 특성을 지니는 반면 행위는 상대적으로 가변적이며 외재적인 특성을 지닌다(Fishbein and Ajzen, 1975; Schuman and Johnson, 1976).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자부들이 결혼을 통하여 시댁식구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부양자 자신

9) 추후에 언급되겠지만, 본 연구에서 부양자는 구체적으로 자부(子婦)를 지칭하는데, 이처럼 부양자를 자부로 국한시킨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아들과 함께 부양의 공유된 책임을 부여받는 며느리가 가정내 노부모부양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양전담자라는 사실(임종권 외, 1985; 이가옥 외, 1990; 김태현, 1998)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의 내재적 특성(연령, 교육수준)은 일차적으로 심리적 차원의 부양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부양자 자신의 특성과 관계없이 결혼 이후에 비로소 접하게된 부양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연령, 건강상태) 및 가족내의 상황(가구원수), 그리고 역할(만머느리 여부)은 행태적 차원의 부양행위에 일차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경로설정은 설정이 배제된 여타의 경로들 역시 이론적 개연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적인 것이 사실이며, 또한 경로설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차후에 논의되다시피, 인과 경로설정의 임의성 및 폐쇄성의 문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LISREL분석방식에 제시되는 수정지표(modification index)¹⁰⁾를 근거로 추가적 인과경로의 설정 및 추정을 행함으로써 보완적 해결이 시도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인과경로 추정전략은 모형에 제시된 각 외생변인의 부양행위에 대한 직접영향 및 간접영향¹¹⁾의 분리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부양태도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진단할 수 있게 하며, 아울러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의 인과요인의 상대적 지속성 및 표출성에 대한 차이 또한 규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제시된 모형에 설정된 각각의 외생변인과 내생변인간의 이론적·가설적 인과관계를 각 외생변인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자의 연령은 부양태도에 정적(正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해, 부양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양대상자에 대하여 보다 전통적 유형의 부양태도를 보일 것이다.¹²⁾ 노인부양과 관련하여 일반화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연령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전통적 부양가치관을 유지한다는 점이다(임종권 외, 1985). 예컨대,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은 장남·차남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형편이 닿는 대로 노부모를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함에 비하여, 40-50대의 중·장년층은 반드시 장남이 모셔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경제기획원, 1992). 부양자의 연령에 따른 이같은 부양가치관의 차이는 부양자의 연령증가에 상응하여 부양대상자의 연령 또한 증가함으로써 노부모의 부양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며(김태현, 1981; 서병숙과 이신숙, 1990), 이같은 상황이 부양자의 부양태도를 고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10) 수정지표(MI)란 LISREL분석결과물에 제시되는 통계치로써, 구조동식모형에 대한 일련의 인과관계 추정과정에서 만일 추가적 추정이 허용될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보일 가능성이 현저한 인과경로를 제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11) 구조동식모형에서 외생변인의 최종 내생변인에 대한 전체영향(total effect)은 직접영향(direct effect)과 간접영향(indirect effect)으로 분리된다. 직접영향이란 모형내 여타 내생변인에 의하여 매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생변인이 최종 내생변인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의미하며, 간접영향은 모형내 여타 내생변인에 의해 매개된 상태에서 외생변인이 최종 내생변인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뜻한다(Alwin and Hauser, 1975).

12) 본 연구에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추후의 설명에서 언급되겠지만, 부양태도는 현대성과 전통성을 양극단 속성(attributes)으로 설정한 연속형변인의 형태로 조작화되었으며, 부양행위는 소극성과 적극성을 양극단 속성으로 설정한 연속형변인의 형태로 조작화되었다.

이다(Lang and Brody, 1983; Hagestad, 1987).

둘째, 부양자의 교육수준은 부양태도에 부적(負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부양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양대상자에 대하여 보다 현대적 유형의 부양태도를 보일 것이다. 학력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인부양과 관련하여 현대적 가치관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임종권 외, 1985; 서병숙과 이신숙, 1990). 가령, 아들·딸 구분없이 부모를 모셔야하는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학력자들일수록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부양태도의 이같은 차이는 교육수준과 관련한 사회적 고정관념(stereotype)의 차별적 영향과 관련된다. 부연컨대, 교육수준은 사회 저변의 고정관념을 차별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모부양과 관련한 전통적 가치관이 함유된 고정관념의 영향은 고학력자들에게보다는 저학력자들에게 더 강하게 작용한다(Hendricks and Hendricks, 1981). 그 결과,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전통적 가치관에 배치되는 부양태도를 견지하게 된다.

셋째, 부양대상자의 연령은 부양행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부양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양자는 보다 더 적극적인 부양행위를 보일 것이다. 생애주기(life span)의 관점에서 볼 때, 연령이 낮은 부양대상자에 비하여 연령이 높은 부양대상자의 경우 심신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도구적, 정서적 측면에서 보다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Atchley, 1972; Stoller and Pugliesi, 1989; Cox, 1993; Kinney, 1996). 또한, 부양대상자의 연령은 부양자의 범위와 일정한 연관을 지녀서, 부양대상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부양 혹은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망이 가족밖(예, 친구)에서 가족내(예, 가족내에서도 특정한 성원—본 연구의 경우 자부—)으로 점차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Gallo, 1982; Antonucci, 1990; Antonucci et al., 1996).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자부의 시부모에 대한 부양필요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부양대상자의 연령 증가는 부양자의 적극적인 부양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 부양대상자의 건강상태는 부양행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부양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열악할수록 부양자는 그러한 부양대상자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양할 것이다.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상태는 곧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적응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의 경우 심신기능의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능력의 약화 및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은 높는데 비하여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결핍되어있는 경우가 많다(Shanas and Maddox, 1985; Kane and Kane, 1987). 특히, 노인성질환은 만성질환의 성격이 강하여 노인의 신체적 거동의 어려움을 흔히 수반하며, 따라서 장기적 보호간호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부양자로부터의 여러 측면에서의 도움을 유발하게되며(Streib, 1972; Streib and Beck, 1980; Whitlatch and Noelker, 1996), 이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양대상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부양행태로 표현되게 된다.

다섯째, 가구원수는 부양행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가구원의 수가 많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자부일수록 시부모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가족에서와 달리 가족의 규모가 클수록 부양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규범적 기대가 존재하는 경향이 있어서(Antonucci et al., 1996), 부양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적극적인 부양행위를 보이게 된다.

여섯째, 부양자가 만며느리인지의 여부는 부양행위에 정적 영향을 미쳐서, 차남 이하 서열의 차자 며느리들에 비하여 만며느리가 보다 더 적극적 부양행위를 보일 것이다. 전통적 장자부양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남편이 장자인 만며느리라는 가정내의 지위는 그에 수반하는 일차적 부양책임을 동반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장남부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임종권 외, 1985; 이가옥 외, 1990; 최정혜, 1992)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차자 며느리에 비하여 만며느리의 경우 자신에게 부여된 가정내 의무가 강력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극적 부양행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모형에 포함된 두 가지 내생변인인 부양태도와 부양행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양태도가 부양행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인과경로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과경로가 설정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태도가 행위의 선행요인(antecedent)이라는 기존의 이론적·경험적 주장(Fishbein and Ajzen, 1975; Ajzen, 1991)을 수용한 때문이며, 또한 노인부양과 관련하여 태도와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적 관계를 형성할 만큼의 불일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기존의 논의(Brody et al., 1983) 및 경험적 발견(임종권 외, 1985; 서병숙과 이신숙, 1990)을 수용한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경우 여타의 사회현상과 달리 노인부양과 관련하여서는 전통적 가치관이 부양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력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인하여 의식적 태도와 실제적 행위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격차가 상존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설정된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는 이론적 문제임과 동시에 경험적 문제의 성격을 다분히 지니는 것으로 여겨진다.

III. 조사 및 분석 방법

1. 조사 및 분석대상의 선별

제시된 모형추정을 위한 자료는 재가(在家)노인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1995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전화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표본추출은 전화번호부 인명부(1995년 2월 현재)를 표본틀로 사용하여 5개구를 인구비례로 층화한 후 각 층(strata)별로 연령별 쿼터를 배정하고 최종적으로 무작위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의 층화표본추출방법(stratified sampling)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선별되었다. 첫째, 연구의 목적상 분석대상을 “현재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정주부”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조사된 1,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조사 당시에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사유로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응답자(n=185) 및 20세 미만 6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응답자(n=100), 그리고 주부가 아닌 응답자(n=142)는 노부모부양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고 603명을 우선 선별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부양의 범위를 “자부의 시부모에 대한 부양”으로 한정하였다. 즉, 자부의 친부모에 대한 부양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계직계가족제도하에서 친부모에 대한 부양은 친가의 자부가 행하고 혼입(婚入)해온 자부가 시부모를 부양하는 전래의 보편적 관습을 고려하기 위한 것 이외에도, 원래의 조사에서 행해진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에 대한 측정방식이 친부모에 대하여는 적절성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다.¹³⁾ 한편, 시부모에 대한 부양을 분석함에 있어서 시부와 시모를 동시에 포함한, 혹은 양자중 어느 한쪽이라도 대상으로한 부양이 아닌 “시부와 시모 각기에 대한 부양”이 별도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시부와 시모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실시된 이유는 시부와 시모를 구분함으로써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현실적 목적 이외에도 부양대상자가 시부인가 혹은 시모인가의 여부에 따라 부양자의 태도 및 행위가 상이할 뿐 아니라 부양대상자(시부 혹은 시모)의 부양자에 대한 부양기대감이 상이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시부 및 시모 부양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을 때, 만일 양자간에 일정한 체계적 차이가 발견된다면 이는 시부 및 시모에 대한 별개의 모형이 설정될 필요성이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별된 603명 가운데, 조사 당시 시부가 생존해있지 않은 368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235명의 응답자만이 시부부양을 위한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시모가 생존해있지 않은 188명을 제외한 415명만이 시모부양을 위한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¹⁴⁾ 마지막으로, 시부가 생존해있는 235명의 응답자 가운데 제시된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이 지니는 결측치(missing cases)를 일률적으로(listwise) 제거한 후 226명을 시부부양을 위한 최종 분석사례수로 선정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시모생존자 415명 가운데 변인들의 결측치를 제외한 408명을 시모부양을 위한 최종 사례수로

13) 연이어 제시되는 변인측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할 것.

14) 이는 시부와 시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생존해있는 경우 뿐 아니라 시부모가 모두 생존해있는 경우 또한 분석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선정하였다.

2. 변인측정

모형에 포함된 외생변인들은 대부분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이므로 특별히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단지, 부양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신체적 건강상태와 정신적 건강상태를 별도로 구분하여 측정한 2개의 문항을 혼합하여 구성되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모형에 포함된 내생변인인 부양태도와 부양행위는 각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부양태도는 노부모부양과 관련한 심리적 의식 혹은 가치관을 측정하는 6가지 문항¹⁵⁾으로 구성된 척도를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혼합한 변인(composite variable)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부양행위는 부양에 관한 의식 혹은 가치관과 관계없이 부양자가 실제로 어떠한 형태의 부양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3가지 문항-거주부양의 정도, 경제적 부양의 정도, 서비스 부양의 정도-으로 구성된 척도를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리커트타입의 5점척도로 전환하여 상호 혼합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¹⁶⁾ 부양태도는 본질적으로 의식의 현대성 및 전통성을 기준으로 조작정의된 심리학적 구성체(construct)이므로 구성된 변인에서 낮은 수치는 현대적 태도를 의미하고 높은 수치는 전통적 태도를 의미

15) "아들·딸 상관없이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시설 좋은 양로원이 있으면 자식이 있더라도 시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 "시부모님이 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시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 "자식이 있어도 건강하다면 시부모님 혼자 사셔도 괜찮다,"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시부모님 혼자 사셔도 괜찮다."

16) 구체적으로, 각 문항별 측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부양의 정도는 자부가 시부모와 거주를 같이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써, 시부 혹은 시모가 혼자서 살고 있을 경우 1점을, 시부 혹은 시모의 배우자와만 살고 있을 경우 2점, 시부 혹은 시모의 부모나 딸·사위 혹은 미혼 자녀와 살고 있을 경우 3점, 응답자 이외의 아들 내외와 살거나 기혼 자녀들의 집 여기저기 다니며 사는 경우 4점, 응답자 내외와 사는 경우 5점을 부여하였다. 둘째, 경제적 부양의 정도는 자부가 시부모에게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써, 시부 혹은 시모로부터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경우는 1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없이 독자적인 경우는 2점, 형제·자매가 분담하되 자신이 일부만을 부담하는 경우는 3점, 형제·자매가 분담하되 자신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부담하는 경우는 4점,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는 5점을 부여하였다. 셋째, 서비스 부양의 정도는 시부모의 거동 혹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물리적 수발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써, 그러한 도움을 제공하는 주당사자가 자부를 포함하여 가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없는 경우에는 1점, 시부 혹은 시모의 배우자인 경우는 2점, 시부 혹은 시모의 딸·사위 혹은 미혼 자녀 혹은 친척이나 가정부인 경우는 3점, 응답자 이외의 아들 내외 혹은 장차남에 관계없이 형편이 허락하는 기혼 자녀 내외 누구이거나인 경우는 4점, 응답자 내외인 경우는 5점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의 부양행위 측정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입장에서 본 부양욕구의 기본적 구성요인이 정서적(혹은 심리적) 욕구 및 경제적 욕구, 그리고 신체·서비스 욕구이며, 따라서 부양행태의 측정은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이가옥 외(1990)의 제언을 수용한 것이다.

함에 비하여, 부양행위는 행동의 소극성 및 적극성을 기준으로 조작정의된 행태학적 구성체이므로 낮은 수치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높은 수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복수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된 두 내생변인은 적절한 정도의 측정속성(psychometric properties)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신뢰도를 내적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1951)의 α 계수로 측정하였을 때, 시부부양과 관련하여서는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의 신뢰도가 각각 .8419 및 .7355이었으며, 시모모형과 관련해서는 각기 .8450 및 .72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변인의 판별적·집합적 타당도(discriminant-convergent validity)를 LISREL측정모형(measurement model)¹⁷⁾을 추정하여 평가하였을 때, 시부부양 및 시모부양 공히 부양행위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부양태도의 경우에는 일부 문항의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s)이 다소 미약하고 요인구조(factor structure)가 명확하지 않은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부양태도와 부양행위는 개념적으로 뿐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확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구성체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두 변인간에 판별타당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⁸⁾

3. 자료분석

제시된 모형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LISREL8(Joreskog and Sorbom, 1993)의 ML(maximum likelihood)추정절차를 통하여 행하였다. LISREL분석방식이 사용된 주된 이유는 복수의 내생변인을 포함하는 경로모형의 추정에 LISREL분석이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가 복수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부양행위에 대한 각 외생변인의 전체영향을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부양행위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시된 이론적 모형이 실제의 경험적 자료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모형부합치(model fit statistics)를 통하여 가늠해볼 수 있다는 사실 등이 함께 고려되었다.

17) LISREL측정모형이란 이론변인(latent variable)들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구조등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과 달리, 이론변인들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변인(manifest or observed variable)들을 근거로 이론변인을 추정하는 LISREL모형을 의미한다(Joreskog and Sorbom, 1993). 따라서, LISREL측정모형은 이론변인과 관찰변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결과를 제시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등식모형의 추정에 앞서 측정모형에 대한 추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을 수용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등식모형이 추정되었음을 일러둔다.

18) 부양태도와 부양행위 사이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해서는 연이어 제시되는 시부 및 시모 모형 각기에 대한 추정결과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IV. 결과

모형에 대한 통계적 추정결과의 제시에 앞서 모형추정전략을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구조등식모형을 연속적으로 추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것처럼, 처음에 제시되었던 기본모형(<그림 1>)을 먼저 추정한 후, 이전의 모형에서 추정이 허용되지 않았던 인과관계들 가운데 주요한 인과관계들을 기존에 추정된 모형과 이후의 모형들에 대한 추정결과를 토대로 하나씩 부가적으로 자유화(free up)¹⁹⁾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수정된 모형을 추정하였다. 구조등식모형에 대한 이같은 일련의 부가적 추정은 기본모형이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노인부양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경험적 지식체계가 제시된 모형에서 설정되지 않은 인과관계를 배제할 만큼 충분히 견고하고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LISREL분석에서 인과모형을 덜 제한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Wheaton, 1987; Marsh et al., 1988; Bollen, 1989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의 부가적 자유화에 대한 결정기준으로 자료의 경험적 수치보다는 이론적 개연성을 우선시하는 보수적 전략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채택된 전략은 다음의 두 가지 절차를 포함하는데, (1) 기본모형에서 설정된 모든 인과관계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이후의 추정에서 삭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과경로를 유지시키며, (2) 부가적 인과경로의 자유화는 LISREL수정지표에 나타난 주요한 인과관계들 가운데 이론적 개연성을 지니는 관계를 하나씩만 연차적으로 추가 허용하였다.²⁰⁾ 이같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성된 수정모형이 최적모형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모형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부양행위의 각 결정요인이 지니는 직접, 간접, 전체 영향을 분리시키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이 시도되었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본 연구에서는 시부부양 및 시모부양에 대한 모형추정결과를 별도로 제시한 후, 두 모형의 결과에 대한 상호비교를 시도할 것이다.

1. “시부”부양에 대한 모형 추정결과

시부부양에 대한 모형추정결과의 제시에 앞서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부들의 연령은 30대가 55.3%, 40대 21.6%, 20대

19) “자유화”란 일련의 구조등식모형에 대한 추정과정에 있어서 이전의 추정에서는 설정되지 않았던 인과경로를 부가적으로 설정함을 의미한다(Wheaton, 1987; Bollen, 1989; Joreskog and Sorbom, 1989).

20) 지면관계상 기본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는 제시되지 않고 최종 수정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만이 제시되었다.

20.4%로써 30대가 주연령층을 이루며(평균=35.115세), 교육수준은 고졸(55.3%) 및 대졸(26.5%)이 주종을 이루고, 시부의 연령은 60대(50.9%) 및 70대(38.9%)가 많으며(평균=69.881세), 시부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며, 가구원수는 평균 4.133명이며, 응답자가 맡며느리인 경우는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부양태도(최소=6; 최대=12)의 평균은 7.283이어서 부양태도가 상당히 현대적인 편이었으며, 부양행위(최소=3; 최대=15)의 평균은 9.190이어서 그다지 소극적이지도 적극적이지도 않았다.²¹⁾

시부부양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1> 및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기본모형 및 이후의 일련의 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 두 가지 부가적 인과경로--시부의 연령이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 및 교육수준이 부양행위에 미치는 영향--가 이론적 개연성이 높

<표 1>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LISREL(표준화계수) 추정결과: 시부부양編 (N=226)

변인	부양태도		부양행위	
	상관관계 계수	구조 계수 ¹⁾	상관관계 계수	구조 계수 ¹⁾
내생변인 부양태도	--	--	.198	.018
외생변인 연령	.461*	.216	--	--
교육수준	-.477*	-.366*	-.064	.114*
시부 연령	.414*	.244*	.423***	.249**
시부 건강상태	--	--	-.439***	-.332**
가구원수	--	--	.503***	.408***
맡며느리 ²⁾	--	--	.049	-.051
R ²		.390		.456
χ^2	170.615(자유도=85), p < .000			
모형부합치	GFI=.909; AGFI=.854; NFI=.736; CFI=.837; IFI=.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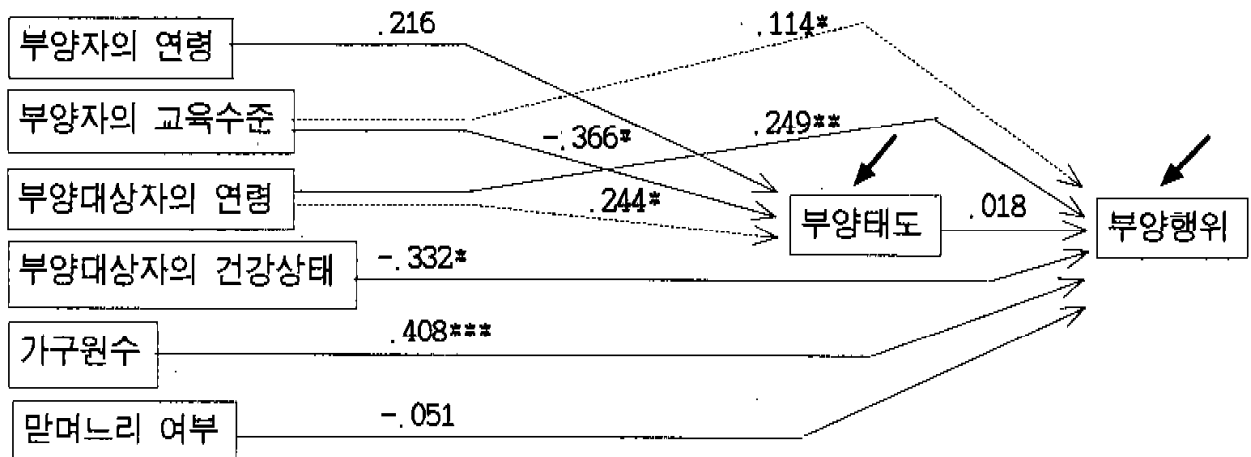
¹⁾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²⁾ 누락된 범주는 맡며느리가 아닌 경우임.

* p < .05, 단측검증. ** p < .01, 단측검증. *** p < .001, 단측검증.

21) 시부 및 시모 모형 공허 변인들에 대한 자세한 기술통계값 및 모든 변인들간의 상관관계(zero-order correlations)는 지면관계상 제시되지 않았다.

으며 수정지표(MI)도 현저하다는 이유에서 추가 추정되었다.²²⁾



¹⁾ 실선은 기본모형에서 설정된 인과경로를 나타내며, 점선은 수정모형에서 추가적으로 설정된 경로를 나타냄. 보다 상세한 자료는 <표 1> 및 <표 2>를 참조할 것.

<그림 2>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수정모형¹⁾: 시부부양編 (N=226)

먼저, 부양태도의 인과적 요인을 살펴보면, 부양태도에 경로가 설정된 3가지 외생변인 가운데 두 변인-즉, 부양자의 교육수준($\beta = -.336$)과 부양대상자의 연령($\beta = .244$)-이 부양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타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자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또한 시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부의 시부에 대한 부양태도는 전 통적이었다. 자부의 연령은 부양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gamma = .461$)는 지나나 유의미한 인과적

22) 두 가지 인과경로에 대한 부가적 추정에도 불구하고, LISREL추정모형에 일정한 부차적 수정을 가할 경우 모형부합치가 향상되고 구조계수(structural coefficients)의 추정치도 변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생변인들간의 상호 연관된 측정오차(correlated measurement errors among the endogenous variable items) 및 외생변인과 내생변인들간의 상호 연관된 측정오차(correlated measurement errors between the exogenous and endogenous variable items)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었는데[Theta-Epsilons 및 Theta-Delta-Epsilons에 대한 자유화의 기준으로는 ① 이론적 개연성, ② 문항 표현의 유사성, ③ 이전의 분석에 제시된 MI의 크기, ④ 이전 분석에 제시된 잔차공분량(residual covariance terms)의 크기(residual TE ≥ 2.00) 등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측정오차들이 상호 연관되도록 허용한 모형과 그렇지 않는 모형(수정모형) 사이에 구조계수에 있어서나 각 내생변인의 설명력(R²)에 있어서, 그리고 모형부합치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같은 비교분석의 결과는 측정모형에 가해진 부차적 수정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측정오차들이 상호 연관되도록 허용하지 않은 모형을 최적모형으로 간주하여 최종 분석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정된 최종 모형에 대한 선택은 변인들간의 측정오차들이 상호 연관되도록 허용할만한 충분한 선행적(a priori)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의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제언을 수용하는 것이다.

영향은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양태도에 대한 연령의 영향은 모형에 포함된 여타의 외생변인들의 영향에 의하여 상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양행위의 인과적 요인을 살펴보면, 부양자의 교육수준($\beta = .114$), 부양대상자의 연령($\beta = .249$) 및 건강상태($\beta = -.332$), 그리고 가구원수($\beta = .408$)가 부양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부의 연령이 높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그리고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자부의 시부에 대한 부양행위는 적극적이었다. 말머느리 여부와 부양태도는 부양행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도 인과적 영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부양행위 결정요인의 직접·간접·전체 영향을 분리한 LISREL(표준화계수) 경로 분석결과¹⁾: 시부부양編 (N=226)

결정요인	직접영향	간접영향 ²⁾	전체영향 ³⁾
내생변인 부양태도	.018	--	.018
외생변인 연령	--	.004	.004
교육수준	.114*	-.007	.107*
시부 연령	.249**	.004	.253**
시부 건강상태	-.332**	--	-.332**
가구원수	.408***	--	.408***
말머느리 ⁴⁾	-.051	--	-.051

¹⁾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²⁾ 간접영향 = (외생변인이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 × (부양태도가 부양행위에 미치는 영향).

³⁾ 전체영향 = 직접영향 + 간접영향.

⁴⁾ 누락된 범주는 말머느리가 아닌 경우임.

* $p < .05$, 단측검증. ** $p < .01$, 단측검증. *** $p < .001$, 단측검증.

수정모형에 포함된 외생변인들 가운데는 부양태도라는 매개적 내생변인을 통하여 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변인도 있음을 고려하여 부양행위를 최종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각 외생변인의 부양행위에 대한 직접, 간접, 전체 영향을 분리시키는 경로분석이 시도되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양행위에 대한 전체영향이 유의미한

외생변인들을 그 영향의 절대적 크기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구원수(.408), 부양대상자의 건강 상태(-.332) 및 연령(.253), 그리고 부양자의 교육수준(.107)이다. 이 결과를 각 변인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가구원수의 전체영향은 간접영향이 없이 직접영향(.408)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영향의 방향은 예측된 바와 같이 정적이다. 둘째, 시부 건강상태의 경우에도 전체영향은 직접영향(-.332)만으로 구성되며 그 영향은 예측된 것처럼 부적 방향이다. 셋째, 시부 연령의 전체영향은 직접영향(.249)과 간접영향(.004) 모두로 구성되며, 간접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직접영향만이 유의미하며, 직접영향과 전체영향 모두 예측된 바와 같이 정적이고, 전체영향의 대부분(98.4%)이 직접영향으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자부 교육수준의 경우 직접영향(.114)과 간접영향(-.007) 모두 존재하지만 직접영향만이 유의미하며, 직접영향과 전체영향 모두 정적 방향이다. 교육수준은 원래 부양태도에 유의미한 부적 단위영향(net effect)(-.366)을 지녔으나 부양태도의 부양행위에 대한 단위영향(.018)이 미미함으로 인하여 교육수준의 부양행위에 대한 간접영향(-.366×.018)도 유의미하지 않게 변화되었으며, 따라서 전체영향도 다소간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교육수준의 부양태도에 대한 부적 영향은 예측된 결과이나 부양행위에 대한 정적 영향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다.²³⁾

위에서 언급된 4가지 이외의 변인들--즉, 부양자의 연령, 만며느리 여부, 부양태도--은 부양행위에 대한 전체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 이들 가운데 특히 부양태도의 부양행위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부양태도는 부양행위에 정적 영향(.018)을 미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아니다. 부양태도는 심리학적 구성체이며 부양행위는 행태학적 구성체라는 점에서 볼 때, 두 변인은 이론적·개념적으로 구분됨에는 틀림이 없지만 과연 이들이 경험적으로도 확연히 구분되는 구성체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만일 두 변인이 경험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유사한 구성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모형에 동시에 설정(specify)될 경우 모형추정에 있어서 심각한 다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모형추정결과 나타난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r = .198$)는 그다지 크지도 작지도 않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두 변인을 포함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이 실시되었는데, 검증결과 2-요인모형(two-factor model)이 지지됨으로써 부양태도와 부양행위는 개념적으로 뿐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구분되는 별개의 구성체이며 두 변인간에는 판별타당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설정된 경로모형의 추정 결과 시부에 대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구원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부의 건강상태, 시부의 연령, 그리고 자부의 교육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시부가 건강하

23)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에 대한 교육수준의 상반된 인과적 영향에 대해선 차후에 해석이 제시될 것이다.

지 않을수록, 시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부는 시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 “시모”부양에 대한 모형 추정결과

시모부양과 관련하여서도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주부들의 연령은 30대(52.5%) 및 40대(28.9%)가 주연령층을 이루며(평균=37.328세), 교육수준은 고졸(51.7%) 및 대졸(20.6%)이 주종을 이루고, 시모의 연령은 평균 70.086세이며, 시모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가구원수는 평균 4.203명이고, 응답자가 만며느리인 경우는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양태도의 평균은 7.346으로써 상당히 현대적이었으며, 부양행위는 평균 10.221이어서 다소간 적극적인 편이었다. 시모모형추정에 포함된 주부와 시부모형추정에 포함된 주부가 반드시 동일한 사람들은 아니므로 시모부양과 관련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시부부양과 관련한 특성과 상호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나타난 결과를 단순히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특이할만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만 부양행위와 관련하여서 시부(평균=9.190)에 대해서보다는 시모(평균=10.221)에 대한 부양이 약간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시모부양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3> 및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시모부양에 관한 모형 추정에서도 기본모형을 먼저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련의 모형들을 연속적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두 가지 인과경로-즉, 부양대상자의 연령 및 만며느리 여부가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가 수정지표(MI)가 현저하며 이론적 개연성 또한 높다는 이유에서 부가적으로 추정되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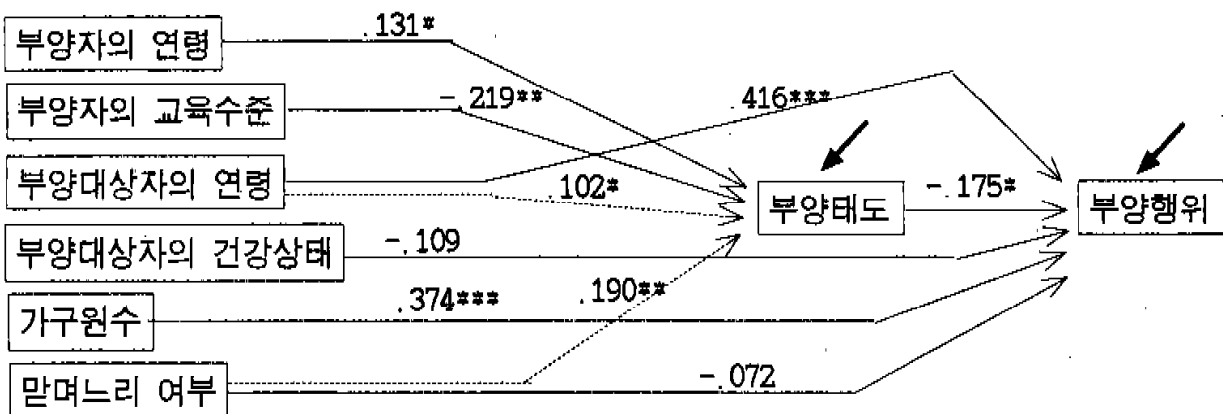
먼저, 부양태도에 대한 인과적 영향을 살펴보면, 기본모형에서 부양태도로 경로가 설정되었던 두 외생변인인 부양자의 연령($\beta = .131$) 및 교육수준($\beta = -.219$) 이외에도 수정모형에서 부가적으로 추정된 부양대상자의 연령($\beta = .102$)과 만며느리 여부($\beta = .190$)가 부양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부의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시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부가 만며느리일수록 시모에 대한 부양태도가 전통적이었다. 다음으로, 부양행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수정모형에서 경로가 설정된 5가지 변인 가운데 부양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만며느리 여부를 제외한 부양대상자의 연령($\beta = .416$) 및 가구원수($\beta = .374$), 그리

24) 시부모형의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모모형에서도 변인들간의 상호 연관된 측정오차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었는데, 분석 결과 측정모형에 대한 부차적 수정은 수정모형에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측정오차가 상호 연관되도록 허용되지 않은 모형(수정모형)이 최종 분석모형으로 선정되었다.

<표 3>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LISREL(표준화계수) 추정결과: 시모부양編 (N=408)

변인	부양태도		부양행위	
	상관관계 계수	구조 계수 ¹⁾	상관관계 계수	구조 계수 ¹⁾
내생변인 부양태도	--	--	-.082	-.175*
외생변인 연령	.350***	.131*	--	--
교육수준	-.342***	-.219**	--	--
시모 연령	.218***	.102*	.440***	.416***
시모 건강상태	--	--	-.171**	-.109
가구원수	---	--	.355***	.374***
맡겨느리 ²⁾	.261***	.190**	-.067	-.072
R ²	.192		.364	
χ ²	260.886(자유도=85), p < .000			
모형부합치	GFI=.927; AGFI=.884; NFI=.747; CFI=.807; IFI=.814			

¹⁾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²⁾ 누락된 범주는 맡겨느리가 아닌 경우임.
 * p < .05, 단측검증. ** p < .01, 단측검증. *** p < .001, 단측검증.



¹⁾ 실선은 기본모형에서 설정된 인과경로를 나타내며, 점선은 수정모형에서 추가적으로 설정된 경로를 나타냄. 보다 상세한 자료는 <표 3> 및 <표 4>를 참조할 것.

<그림 3>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수정모형¹⁾: 시모부양編 (N=408)

고 부양태도($\beta = -.175$)가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양태도가 현대적일수록 자부는 시모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부부양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모부양과 관련하여서도 외생변인들의 부양행위에 대한 직접, 간접, 전체영향을 분리한 경로분석이 시도되었는데(<표 4>), 시모부양행위에 대한 전체영향이 유의미한 변인들은 부양대상자의 연령(.398), 가구원수(.374), 부양태도(-.175), 그리고 부양자의 교육수준(.038)의 순이었다. 각 변인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시모의 연령은 간접영향(-.018)은 유의미하지 않고 직접영향(.416)만이 유의미하며, 유의미한 영향의 방향은 예측된 바와 같이 정적이었다. 시모 연령의 경우 전체영향(.398)에 비하여 오히려 직접영향(.416)이 더 컸는데, 이는 부양태도의 부양행위에 대한 부적 영향으로 인하여 간접영향이 부적으로 변환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이다. 둘째, 가구원수의 전체영향은 간접영향이 없이 직접영향(.374)만으로 구성되는데, 직접영향은 유의미하며, 예측된 것처럼 정적 방향을 지닌다. 셋째, 부양태도와 부양행위

<표 4> 부양행위 결정요인의 직접·간접·전체 영향을 분리한 LISREL(표준화계수) 경로 분석결과¹⁾: 시모부양編 (N=408)

결정요인	직접영향	간접영향 ²⁾	전체영향 ³⁾
내생변인 부양태도	-.175*	--	-.175*
외생변인 연령	--	-.023	-.023
교육수준	--	.038*	.038*
시모 연령	.416***	-.018	.398***
시모 건강상태	-.109	--	-.109
가구원수	.374***	--	.374***
만머느리 ⁴⁾	-.072	-.033	-.105

¹⁾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²⁾ 간접영향 = (외생변인이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 × (부양태도가 부양행위에 미치는 영향).

³⁾ 전체영향 = 직접영향 + 간접영향.

⁴⁾ 누락된 범주는 만머느리가 아닌 경우임.

* $p < .05$, 단측검증. ** $p < .01$, 단측검증. *** $p < .001$, 단측검증.

를 연결하는 제3의 매개변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태도의 전체영향은 전적으로 직접영향(-.175)으로만 구성되며,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부적 방향이다.²⁵⁾ 부양태도가 부양

행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론 구성시에는 미처 예측하지 못하였던 결과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로 유보하기로 한다. 넷째, 자부의 교육수준의 전체영향은 전적으로 간접영향(.038)만으로 구성되며, 그 영향의 방향은 정적이었다. 교육수준은 원래 부양태도에 유의미한 부적 단위영향을 지녔으나, 부양태도의 부양행위에 대한 부적 영향의 결과로 간접영향은 정적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부양행위에 대한 전체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 가운데 부양자의 연령과 맘며느리 여부는 부양태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정적 단위영향을 지녔으나 부양태도의 부양행위에 대한 부적 영향으로 인하여 간접영향이 상쇄됨으로써 전체영향 또한 통계적 유의도를 상실하였다.

요컨대, 설정된 경로모형의 추정 결과 시모부양행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시모의 연령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구원수, 부양태도, 그리고 자부의 교육수준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시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부의 부양태도가 현대적일수록, 자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부는 시모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 부양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부 및 시모부양 모형 추정결과의 비교 및 해석

이상에서 시부 및 시모부양 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았는데, 각 모형에 대한 추정결과와 아울러 두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이 시부와 시모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논의의 편의상 모형에 설정된 외생변인의 순서대로 제시하기로 하겠다.

첫째, 부양자의 연령은 두 모형 모두에 있어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두 모형 모두에서 연령은 부양행위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양태도를 통하여 매개되는 간접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컨대, 자부의 연령은 시부모에 대한 부양행위에 인과적 영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부양자의 연령이 모형에 설정된 이유는 연령에 따른 부양 관련 가치관 및 부양대상자의 의존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는데, 이를 지지할만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본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부양자의 연령에 따른 부양행태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양자의 교육수준은 두 모형 모두에 있어서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자부일수록 보다 적극적인 부양행위를 보인다는 사실이 시부 및 시모모형에서 공

25) 시부모형에서 시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모모형에서도 부양태도와 부양행위간의 확인적 요인분석(CFA)이 시도되었는데, 검증결과 2-요인모델이 지지됨으로써 두 변인은 개념적·경험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구성체이며 판별타당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자부일수록 현대적 유형의 부양태도를 유지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두 모형간에 차이가 없었다. 요컨대, 교육수준이 높은 자부일수록 시부모에 대한 부양태도는 현대적이거나 실제로는 시부모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송현애(1986) 및 서병숙과 이신숙(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교육수준과 관련하여서 시부모 부양에 대한 심리적 차원의 태도와 행태적 차원의 행위가 상반됨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주목을 요한다.

교육수준에 따른 부양태도의 차이는 학력에 따른 고정관념의 차별적 영향과 관련된 가치관의 차이를 시사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교육수준은 사회 저변의 고정관념을 차별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모부양과 관련한 전통적 가치관이 함유된 고정관념의 영향은 저학력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한다(Hendricks and Hendricks, 1981). 그 결과,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전통적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기준을 근거로 태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현대적 유형의 부양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대적 부양태도를 지니는 고학력 주부들이 실제로 시부모를 부양하는 행태에 있어서는 저학력 주부들에 비하여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는 결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태도와 행위간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지 않고 양자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된 바 있지만, 교육수준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특정 변인의 태도 및 행위에 대한 영향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현상은 예기치 못한 결과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이에 대한 간접적 해답의 실마리를 추론적 차원에서 제시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최소한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그 첫 번째 가능성은 교육수준과 부양태도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서, 학력에 따른 태도와 행위간의 차별적 불일치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노부모부양에 대한 심리적 태도와 행태적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정도는 학력이 낮은 주부들에게서보다는 학력이 높은 주부들에게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저학력 주부들의 경우 전통적 부양태도가 적극적 부양행위로 비교적 일관성있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음에 비하여 고학력 주부들의 경우에는 이같은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현대적 태도와 적극적 행위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는 단지 추론적 수준의 해석이긴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이론적 개연성을 지닌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부양태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설정된 상태에서 구성된 모형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수준과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두 번째 가능성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해석은 학력에 따른 부양여건의 실질적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다. 학력과 경제력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학력이 낮은 주부들은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여건이 결여되어 노부모를 잘 모시고 싶은 의향은 있어도 실제로는 모실 형편이 안되는 경향이 있음에 비하여, 고학력 주부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구비되어 부양태도 자체는 현대적이면서도 실제로는 잘 모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가능성은 특히 본 연구에서 부양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세 가지 문항 가운데 두 문항인 동거관계 및 경제적 지원이 실제로 부양자의 경제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개연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며,²⁶⁾ 또한 가구 소득이 낮은 주부들에 비하여 가구소득이 높은 주부들이 노인부양에 관한 의식은 현대적이지만 실제 수행도는 오히려 더 높다는 서병숙과 이신숙(1990)의 조사결과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셋째, 부양대상자의 연령의 경우에도 두 모형간에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연령의 부양행위에 대한 전체 영향은 두 모형에서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이 변인이 부양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한 분석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부양대상자의 연령은 부양태도에 의하여 거의 매개되지 않고 부양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자부는 나이가 많은 시부모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양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론적 논의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연령이 그다지 높지 않은 시부모의 경우와 달리 고령의 시부모는 거주 및 경제적 지원, 그리고 물리적 거동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보다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그러한 도움을 제공하는 관계망이 자부어로 한정되는 경향마저 보임으로 인하여 노쇠한 시부모를 둔 자부는 실제로 이들을 보다 잘 모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부양대상자의 건강상태는 두 모형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이 변인은 시부에 대한 부양행위에만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이 있었다. 즉, 시모의 건강상태는 부양행위에 직접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을 뿐더러 간접영향도 없었으나, 시부 건강상태의 인과적 영향은 부양태도에 매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의미한 직접영향을 보였다. 요컨대, 시모의 건강상태는 시모에 대한 부양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나, 시부의 경우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자부가 보다 더 적극적 부양행태를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에서 언급된 부양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논의에서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시부의 열악한 건강상태는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며(조유향과 윤현숙, 1988; 이인정, 1989; 전광석, 1991), 이는 곧 시부에 대한 적극적 부양행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⁷⁾

다섯째, 가구원수의 영향에 있어서는 시부 및 시모 모형간에 상당히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26) 노부모부양과 관련하여 가구의 경제력을 가늠할 수 있는 변인들(예, 가구수입, 재산소유정도 등)을 포함하여 모형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으나, 연구방법에서 지적되었듯이 본 연구는 애초에 이러한 변인들이 측정되지 않은 자료를 이차분석(secondary analysis)하는 방식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변인들이 배제된 채 모형이 구성되었다.

27) 시부의 연령과 건강상태는 밀접한 연관을 지닐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모형추정에 있어서 다공선성의 문제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gamma = -0.284$)는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이는 그러한 문제의 가능성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즉, 두 모형 모두 가구원수는 부양태도에 매개됨이 없이 부양행위에 정적 직접영향을 보였다. 가구원수가 많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자부일수록 가정내 규범적 기대에 부응하여 시부모 모두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규모 가족에서보다는 대규모 가족에서 생활하는 자부가 실제로 시부모를 더 잘 모신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수가 많은 자부일수록 부양수행도가 높다는 송현애(1986) 및 서병숙과 이신숙(1990)의 조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여섯째, 자부가 딸며느리인가의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인의 경우 역시 두 모형간에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이 변인은 부양행위에 유의미한 전체영향을 지니지 않았다. 요컨대, 딸며느리와 차자 며느리 사이에 부양행태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두 모형에서 공히 발견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장자부양윤리가 이미 상당 부분 퇴색되었으며, 설사 자부들이 그같은 윤리 혹은 태도를 보유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행태적 차원의 행위로까지 표면화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서병숙과 이신숙(1990)도 시가에서 자부의 순위가 부양수행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부양태도의 부양행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두 모형을 비교하면, 부양태도의 인과적 영향은 시부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고 시모모형에서만 부적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부양태도가 시부에 대한 부양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나 시모에 대한 부양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여서, 시모에 대하여 현대적인 부양태도를 지니는 자부가 실제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모를 부양하고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이같은 결과는 시모에 대한 부양에 있어서 자부가 보이는 심리적 차원의 태도와 행태적 차원의 행위가 불일치하는 정도를 넘어서 서로 상반되는 양상을 보임을 시사하는 것인데, 이 또한 본 연구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는 없겠으나, 한 가지 추론적 설명을 제시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자부의 시모에 대한 일종의 이율배반적인 대응양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고부관계'라는 통속적 용어가 축약적으로 대변하듯이, 우리사회에서 자부와 시부모간의 관계와 달리 고부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매우 민감한 관계이어서 자부는 시모를 부양함에 있어서 자신이 비록 내면적으로는 시모와 배치되는 의식 혹은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표출함이 없이 표면적으로는 적극적 부양행태를 내보이는 가능성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더구나,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모에 대한 현대적 부양태도를 견지하는 자부들은 대체로 전통적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고학력 주부들로서 이들은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가 심하며 부양을 위한 경제적 여건 또한 구비하고있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자부의 시모에 대한 이율배반적 대응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닐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자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에 대한 부양

기대감은 시부모보다는 시모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큰 것이 보편적이며,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 노인들이 부양만족도를 덜 느낀다(김태현, 1981)는 일반적 사실 또한 부양태도와 부양행위간의 관계가 시부의 경우와 시모의 경우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부분적으로 설명해줄 것으로 풀이된다.

두 모형간의 비교결과를 종합할 때, 시부 및 시모 모두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으로는 부양자의 교육수준 및 부양대상자의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를 지적할 수 있다. 요컨대, 시부모에 대한 부양이 고령의 시부모를 두고 있는 대규모 가족에서 생활하는 고학력 주부들을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세 가지 변인을 제외하고는 두 모형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발견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에 대한 주부들의 태도가 상당히 현대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시부 혹은 시모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주부들은 부양과 관련하여 매우 현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부모부양과 관련한 전통적 관념 및 가치관이 이미 상당 부분 퇴색되고 현대적 유형의 의식에 의하여 대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둘째, 노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 의식의 퇴색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양행태에 있어서는 전래의 관습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양과 관련한 심리적 차원의 태도는 현대적이지만 이같은 태도가 실제적 행동으로까지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노부모에 대한 거주 및 경제적·물리적 지원 등에 있어서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의 부양이 비교적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노인부양이 타율적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임종원 외(1985)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²⁹⁾ 본 연구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부양과 관련한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현상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

28) 한편, 이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표본에 고유한(sample-specific)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들이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들과 유사한 부양태도를 지닌다고 단순히 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병숙과 이신숙(1990)은 도시지역의 기혼여성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기혼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전통적 부양의식을 견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29) 임종원 외(1985)에 의하여 조사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자부들은 비록 자신들이 노부모를 타율적인 이유에서 부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부양의무를 계속해서 맡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부모부양에 관한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 심한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 분야의 후속연구에서는 두 구성체를 모두 포괄한 상태에서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또한 각 구성체와 관련된 인과적 요인이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려는 체계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부모부양과 관련한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현상은 연로한 시부모를 둔 가정에서 주부들이 진정한 개체의식의 자발적 발로로써 시부모를 부양하는 것이기보다는 자부로서의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고 갈등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한 수동적 반응의 성향을 강하게 지닌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써, 이는 주부들이 겪고있는 잠재적 역할갈등을 단적으로 암시하는 결과임과 동시에 그러한 역할갈등이 가정내 불화의 형태로 표면화될 상시적 가능성 또한 드러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연로한 시부모에 대한 가족내 부양을 자부의 고유 역할로 규정하는 전통적 사회관념이 변화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며, 문제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있는 주부들 당사자의 개인적 선택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예컨대, 노부모를 모시는 주부들을 위한 상담 및 재교육제도의 확충, 실버산업의 활성화, 각종 노령수당 및 연금제도의 도입 및 확충, 노인여가제도의 확충, 노인을 위한 취업알선, 노인주간보호소 및 노인건강관리체계(예, 가정봉사원제도, 간병인제도)의 마련,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부여 등은 의식과 행동간의 괴리에서 유발되는 주부들의 갈등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부양체제를 확립케하는 제도적 방안일 수 있을 것이다.³⁰⁾ 이같은 사회적 지원체계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자부에 의한 전통적 노인부양체계가 지배적 규범 및 관행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부양의무를 떠맡고있는 자부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후에는 자녀에게서 부양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는 여러 조사결과들(임종권 외, 1985; 박태룡, 1986; 최성재, 1992; 문현상 외, 19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셋째, 부양태도를 설명하는 인과적 요인과 부양행위를 설명하는 인과적 요인이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대체로 부양자 자신이 지니는 지속적·내재적 특성은 일차적으로 부양태도에 영향을 미침에 비하여 부양자의 지속적·내재적 특성과 무관한 부양대상자의 특성 혹은 가족내의 상황 및 역할은 부양태도보다는 부양행위에 일차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인과관계가 예외없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어서, 예컨대 부양자의 지속적·내재적 특성인 교육수준은 부양행위에도 직접적

30)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과 행동간의 괴리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에서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전통적 경로효친 사상의 고취를 통한 사적 부양체계의 강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현재적 부양의식 및 실태의 문제가 개인 혹은 가족의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사회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명백한 한계를 지니며, 따라서 사적 가족부양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공적 부양체계의 확충이 근본적 대책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또한 부양대상자의 특성인 연령 및 가족내 역할과 관련된 변인인 맏며느리 여부는 부양태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일부의 예외적 인과관계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지속적이며 내재적인 특성을 지니는 변인들은 부양행위보다는 부양태도에 일차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변적이며 외재적인 변인들은 부양태도보다는 부양행위에 일차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앞서의 예측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과경로 설정전략이 적절한 것이었음을 증빙하는 결과이기도하다. 요컨대, 앞에서 제시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와 아울러,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결과는 부양태도와 부양행위가 서로 상이한 선행요인을 지니는 별개의 구성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넷째, 부양태도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과도하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경로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제시되었듯이(<표 2> 및 <표 4>), 본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부양태도를 통하여 매개되는 외생변인들의 간접영향이 비교적 제한된 경향을 보여서, 부양태도는 여러 외생변인들의 부양행위에 대한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전혀 담당하지 못하거나 혹은 매개한다손 치더라도 그 역할 자체가 비교적 미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에서 부양태도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이 자칫 실제보다 과장되어 강조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이론적·경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³¹⁾

다섯째, 모형에 설정된 외생변인들 가운데 시부 및 시모의 부양행위를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일부 변인들(예, 부양자의 교육수준, 부양대상자의 연령, 가구원수)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두 모형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시부에 대한 부양행위와 시모에 대한 부양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선행요인을 지니는 현상은 아닐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시부모 부양에 관한 이론적 모형의 구성에 있어서 시부 및 시모에 대한 별개의 모형이 구성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여섯째, 제시된 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내린다면,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다. (1) 기본모형과 수정모형을 모형부합치 및 결정계수(R^2)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볼 때, 수정모형은 모형부합치 뿐 아니라 결정계수에 있어서도 상당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³²⁾ 본 연구에서 채택된 모형수정전략이 지니는 적절성

31)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부양태도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이 실제보다 과장될 가능성은 이 분야의 기존 연구들이 지니는 沒이론적 연구성향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부양태도에 의하여 매개되며 어떠한 요인은 부양태도에 의해 매개됨이 없이 부양행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숙고가 없는 상태에서 모형의 경로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이지 못하며 때에 따라서는 상충되기도 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겠으나, 모형구성에 있어서의 이러한 몰이론적 성향은 사후해석적인 연구결과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및 필요성을 증빙하고 있다. (2) 수정모형의 모형부합치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상이한 부합치에 있어서³²⁾ 시부모형(GFI=.909, AGFI=.854, NFI=.736, CFI=.837, IFI=.848)과 시모모형(GFI=.927, AGFI=.884, NFI=.747, CFI=.807, IFI=.814)간에는 특이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며, 두 모형 모두에서 이론적 모형과 경험적 자료가 적절히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정계수를 기준으로 수정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시부모형에 설정된 외생변인들은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 각각이 지니는 변량의 39.0% 및 4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ISREL 분석의 ML절차가 이론변인의 측정오차를 수정시킴으로써 여타의 분석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결정계수를 제공한다는 원론적 사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구성된 시부모형의 설명력을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시모모형의 경우에는 설명력이 다소 낮았는데(부양태도 19.2%, 부양행위 36.4%), 이 점에서 볼 때 시모모형은 필요한 외생변인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음으로 인한 미설정오류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여타의 주요 이론적 외생변인들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보다 포괄적인 모형이 구성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 수정모형에 설정된 인과경로들 가운데 이론적으로 예측된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로의 수에 있어서, 시부모형의 경우에는 9가지 경로 가운데 5가지 경로가, 그리고 시모모형의 경우에는 9가지 경로 가운데 6가지 경로가 예측된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과반수 이상의 인과경로가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였는데, 이는 모형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형의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입증하는 결과이다. 요컨대, 이상의 네 가지 기준에서의 평가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구성된 모형은 그 시안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모형에 설정된 변인의 수가 비교적 한정되어 있었으며 표본 또한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시된 모형은 발전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추후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평가

-
- 32) 기본모형과 수정모형을 비교할 때, 먼저 모형부합치에 있어서 시부모형의 경우 GFI=.908, AGFI=.853, NFI=.726, CFI=.829, IFI=.839에서 GFI=.909, AGFI=.854, NFI=.736, CFI=.837, IFI=.848으로 향상되었으며 시모모형의 경우에는 GFI=.926, AGFI=.884, NFI=.739, CFI=.801, IFI=.808에서 GFI=.927, AGFI=.884, NFI=.747, CFI=.807, IFI=.814으로 향상되었다. 다음으로, 결정계수에 있어서 시부모형의 경우 R²=.113(부양태도), R²=.445(부양행위)에서 R²=.390(부양태도), R²=.456(부양행위)으로 향상되었으며 시모모형의 경우 R²=.159(부양태도)에서 R²=.192(부양태도)으로 향상되었다(시모모형에서 부양행위에 대한 경로가 추가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양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모형과 수정모형간에 R²의 변화가 없었다).
- 33) 모형부합정도를 평가하는 전통적 방식인 카이제곱(χ^2)검증방법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고 다변인정상분포(multivariate normality)에 관한 검증전제를 흔히 위반한다(Bentler, 1980; Bentler and Bonett, 1980; Bollen, 1989; Joreskog and Sorbom, 1993)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 등식모형 추정시 GFI, AGFI, NFI, CFI, IFI 등을 기준으로 모형부합정도를 평가하였다.

가 행하여진 모형을 적용하기보다는 연구자가 개발한 시안적 모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형구성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오류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미설정오류의 가능성으로써, 부양태도 및 행위와 인과관계를 지니는 이론적 외생변인들을 추가로 설정한 보다 포괄적 모형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예컨대, 가구수입, 시부모의 경제력 보유 정도, 시부모의 배우자 유무 및 사회적 지원망, 자부의 종교 및 출생 순위, 거주지역(도시 對 농촌) 등의 변인들에 대한 추가는 모형의 설명력을 제고하고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도 보다 안정되게 확보케하는 방안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안적 모형은 추후의 지속적인 이론적 개발 및 경험적 검증을 통하여 수정·보완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둘째, 시부 및 시모부양의 결과에 대한 대등한 비교(equivalent comparison)를 기하기 위해서는 시부와 시모가 모두 생존해있는 가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부와 시모 가운데 어느 한쪽의 부모만 생존한 경우라도 분석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시부모가 모두 생존한 가구의 수($n=170$)가 지나치게 적음으로써 분석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을 제약할 가능성을 경감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된 두 모형간의 비교는 이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시부모가 모두 생존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또한 동일 가구내에서도 부양자와 부양대상자 모두에게 공통된 질문을 행함으로써 부양 관련 태도 및 행태에 있어서의 양자간 격차를 파악할 필요 또한 있을 것이다. 발전적 연구를 위한 마지막 제언으로, 노인부양의 세 가지 차원-정서적 부양, 경제적 부양, 신체·서비스부양-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서병숙과 이신숙, 1990; 이가옥 외, 1990)를 상기할 때, 추후의 연구에서는 부양자의 부양태도 및 행위가 각 하위 차원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일정한 체계적 차이가 발견될 경우 이는 학문적으로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1992. 한국의 사회지표.
- 김성순. 1990. 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 서울: 홍익제.
- 김태현. 1981. "한국에 있어서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_____. 1998. 노년학. 서울: 교문사.
- 문현상 외. 1996.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인덕. 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박재간. 1985. "21세기 노인문제와 사적부양기능". 한국노년학. 제5권.
- _____. 1990. "노령자 주거정책의 과제와 전망". 노인복지개발학술세미나(1990.7.28 충무)발표문.
- 박재홍. 1993. "노인문제". 고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pp. 303-338.
- 박태룡. 1986.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 사회복지연구(대구대학교). 제14집. pp. 39-54.
- 보건복지부. 1997. 보건복지통계연보.
- 서병숙, 이신숙. 1990. "농촌기혼여성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수행도". 한국노년학. 제10권. pp. 191-211.
- 성규탁. 1990(a). "한국노인의 가족중심적 상호부조망". 한국노년학. 제10권. pp. 163-180.
- _____. 1990(b). "한국인의 부모부양을 위한 의지와 관행에 관한 연구: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10권. pp. 251-273.
- 송현애. 1986. "부양을 중심으로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6. 노인복지편람.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윤종주. 1988. "우리나라 노년인구의 성장추이 및 전망". 한국노년학. 제8권.
- 이가옥 외. 1989.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이가옥 외. 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규. 1983.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이인정. 1989. "병약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보호자의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14권. pp. 163-197.
- 임종권 외. 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장경섭. 1993. "가족문제". 고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pp. 189-225.
- 장인협, 최성재. 1994.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광석. 1991. "한국노령보장법의 현황과 과제". 사회보장연구. 제7권. pp. 183-204.

- 조유향, 윤현숙. 1988.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한림대학교 사회의학연구소.
- 최성재. 1984. "현대화와 한국노인의 가족에로의 사회적 통합". 한국사회복지학. 제6권.
- _____. 1992.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정혜. 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통계청. 1991. 장래인구추계: 1990-2021년.
- _____. 1997. 한국통계연감.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한국·일본·태국·미국·영국·프랑스 6개국 노인 의식구조 비교조사.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2.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노인생활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 _____. 1996. "우리나라 노인산업의 발전방향". 보건사회연구. 제16권.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pp. 179-211.
- Alwin, D. F. and R. M. Hauser. 1975. "The Decomposition of Effects in Path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pp. 37-47.
- Anderson, J. C. and D. W. Gerbing.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pp. 411-423.
- Andrews, K. H. and D. B. Kandel. 1979. "Attitude and Behavior: A Specification of the Contingent Consistency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2. pp. 298-310.
- Antonucci, R. 1990. "Social Support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3rd Edition. Edited by R. H. Binstock & L. George.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Antonucci, T. C., A. M. Sherman, and H. Akiyama. 1996. "Social Networks, Support, and Integration." In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 1. Edited by J. E. Birre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pp. 505-515.
- Archord, P. G. 1983. "Impact of Parent-Caring on Women." *Family Relations*. 32. pp. 39-45.
- Atchley, R. C. 1972. *The Social Forces in Later Life*. Belmont, CA: Wadsworth.
- Bentler, P. M. 1980. "Multivariate Analysis with Latent Variables: Causal Model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1. pp. 419-456.
- Bentler, P. M. and D. G. Bonett.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of-Fit in the Analysis

- of Covariance Struc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 pp. 588-606.
- Bollen, K.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Y: Wiley.
- Brody, E. M., P. T. Johnson, M. C. Fulcomer, and A. M. Lang. 1983. "Women's Changing Roles and Help to Elderly Parents: Attitudes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38(5). pp. 597-607.
- Cantor, M. H. 1983. "Strain among Caregivers: A Study of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23(6). pp. 597-603.
- Cantor, M. H. and V. Little. 1985. "Aging and Social Care."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nd Edition. Edited by R. H. Binstock & E. Shanas. NY: Van Nostrand Reinhold. pp. 745-781.
- Cox, H. G. 1993. *Later Life*. 3rd Edi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Cronbach, L. J. 1951.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16. pp. 297-334.
- Deimling, G. T. and D. M. Bass. 1986. "Symptoms of Mental Impairment among Elderly Adults and Their Effects on Family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41. pp. 778-784.
- Fishbein, M. and I. Ajzen.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Gallo, F. 1982.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Networks on the Health of the Elderly." *Social Work in Health Care*. 8(2). pp. 65-74.
- Hagestad, G. O. 1987. "Able Edlerly in the Family Context: Change, Chance, and Challenges." *The Gerontologist*. 27. pp. 417-422.
- Hendricks, J. and C. D. Hendircks. 1981. *Aging in Mass Society: Myths and Realities*. Cambridge, MA: Winthrop.
- Joreskog, K. G. and D. Sorbom. 1989. *LISREL7: A Guide to the Program and Applications*. Chicago, IL: SPSS Publications.
- _____. 1993. *LISREL8*.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Kane, R. and R. Kane. 1987. *Long-Term Care: Principles, Programs, and Policies*. NY: Springer.
- Kim, S. W., S. T. Cyphert, and J. L. Price. 1993. "A No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and Records-Based Measures of Absenteeis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idwest Sociological Society Meetings, Chicago, IL.
- Kim, S. W., J. L. Price, C. W. Mueller, and T. W. Watson. 1996. "The Determinants of Career

- Intent Among Physicians at a U.S. Air Force Hospital." *Human Relations*. 47(9). pp. 947-976.
- Kinney, J. M. 1996. "Home Care and Caregiving." In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 1. Edited by J. E. Birre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pp. 667-678.
- Lang, A. M. and E. M. Brody. 1983.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Daughters and Help to Their Edlerly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pp. 193-202.
- Marsh, H. W., J. Balla, and R. McDonald. 1988. "Goodness-of-Fit Indexe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ffect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103. pp. 391-410.
- Pearson, J., S. Verma, and C. Nellett. 1988. "Elderly Psychiatric Patient Status and Caregiver Perceptions as Predictors of Caregiving Burden." *The Gerontologist*. 28(1). pp. 79-82.
- Schuman, H. and M. P. Johnson. 1976. "Attitude and Behavi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 pp. 161-207.
- Shanas, E. and G. L. Maddox. 1985. "Health, Health Resources, and the Utilization of Care."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nd Edition. Edited by R. H. Binstock & E. Shanas. NY: Van Nostrand Reinhold. pp. 697-726.
- Stoller, E. P. and K. L. Pugliesi. 1989. "Other Roles of Caregivers: Competing Responsibilities or Supportive Resources." *Journal of Gerontology*. 44(6). pp. 231-238.
- Streib, G. F. 1972. "Older Families and Their Troubles: Families and Social Responses." *Family Coordinator*. 21. pp. 5-19.
- Streib, G. F. and R. W. Beck. 1980. "Older Families: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pp. 205-224.
- U. N. 1990. *World Population Projections As Assessed in 1990*.
- Wheaton, B. 1987. "Assessment of Fit in Overidentified Models with Latent Variable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6. pp. 118-154.
- Whitlatch, C. J. and L. S. Noelker. 1996. "Caregiving and Caring." In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 1. Edited by J. E. Birre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pp. 253-268.

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Housewives' Caregiving Behavior to Their Elderly Parents-in-Law: Estimation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s for Fathers-in-Law and Mothers-in-Law

Kim, Sang Wook · Yang, Chul Ho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housewives' caregiving behavior to their elderly parents-in-law. For this purpose, a tentative path model, constructed with maj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 the caregiver's family as exogenous variables, is proposed to account for caregiver's behavior to elderly parents-in-law. The model is estimated with data collected from a probability sample of housewives in Kwangju, Korea. Estimation of the model, separately for caregiver's fathers-in-law and mothers-in-law, in terms of maximum likelihood(ML) procedures in LISREL8 reveals that housewives' educational attainment, father-in-law's age, father-in-law's health status, and family siz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causal effects on caregiving behavior to fathers-in-law, and that housewives' educational attainment, mother-in-law's age, family size, and caregiving attitude have significant causal effects on caregiving behavior to mothers-in-law. Comparison of the two estimated models indicates caregiver's educational attainment, caretaker's age, and family size are prominent determinants of caregiving behavior that can be commonly generalized to the two models. Except for these common determinants, however, a nonnegligible amount of differences is identified between the two models. The findings are discussed and interpreted with suggesting some salien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el : 0613-330-3695

Fax : 0613-330-3609

E-mail : swkim@dongshinu.ac.kr